테마칼럼 | 이성세계 | 정치프리즘 | 정세의 눈 | 문화 향기

신안 '보물선'

지 건 길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동아대학교 교수〉

"신안 '보물선'과 비슷한 시기에 해당되는 이들 무역선을 통해 당시에 활발히 이루어진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바닷길 '실크로드'의 실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1975년은 한국고고학 백년사에서 매우 중요한 획을 그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해 봄, 목포에서 서북쪽으로 백 여리 가량 떨어진 신안군 도덕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려진 중국 도자기 여섯 점이 계기가 되어 그 다음 해 10월부터 대규모의 수중(水中)발굴이 이루어지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전례가 없이 처음 벌어지는 수중 발굴이어서 이를 감당할만한 전문가나 장비가 없는데다가 발굴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여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시작된 발굴이었다. 훈련된 수중고고학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군으로부터 해저탐사요원과 장비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세계 고고학사상 그 유례가 드문 해군 지원의 발굴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소경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 발굴

더구나 이 해역은 간만(干滿)의 차가 심하고 물살이 너무 세어 조사가 가능한 기간은 바닷바람이 덜한 여름철의 두 세달, 그것도 하루 중 물속이 잔잔하여 조사가 가능한 정조(停潮)시간은 3~40분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센 물살에 따른 뻘 흙의 소용돌이 때문에 시계(視界)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라서 목측(目測)에 의한 실측은 불가능했다.

고고학 조사의 필수랄 수 있는 실측을 위해서는 아무런 고고학 발굴의 경험이 없는 현역병들이 수심 20미터의 물 속에 들어가 손으로 더듬어 본 결과를 물 밖으로 나와 일러주는 상황을 갑판 위에 대기하고 있는 조사요원들이 그려 나가는 식이었다. 그야말로 '소경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발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어려운 악조건에서의 8년 남짓한 오랜 수중 작업을 거쳐 인양된 유물은 송·원대(宋·元代)에 속하는 청자와 백자가 주류를 이루는 갖가지 중국 도자기 2만 여점을 비롯하여 은이나 청동으로 만든 금속공예품과 석제품, 목칠기 등 미술사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명품 들이었다.

특히 배 밑창에서 건져낸 무려 28톤이 넘는 동전(銅錢) 무더기는 당(唐)에서부터 원대에 이르기까지 종류만으로도 70여종이 넘었는데 개당(個當) 무게가 대개 5그램 안팎임을 감안할 때 그 엄청난 수량을 어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종류와 분량의 '보물'이 한꺼번에 수습된 유적은 세계 고고학사에서도 그 유례가 드문 것으로서 특히 도자기 가운데에는 중국의 현지에서도 보기 드문 희귀품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유물 수습이 한창이던 1978년에 이곳 광주에 새 국립박물관이 문을 열게 됐고, 지금은 서울의 중앙박물관에도 '신안실'이 따로 마련되어 선별된 명품들이 따로 전시되고 있다.

이들 유물 수습을 마친 뒤 인양된 선체는 전체적으로 부식과 파손이 심한 편이었지만 다행히 남아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문화재연구소 목포보존처리장(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복원이 이루어져 지금 전시관에 옛 모습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복원 결과 200톤 가량으로 추정되는 이 침몰선은 7~8개의 격벽(隔壁)으로 이뤄진 선창(船倉)을 갖춘 발달된 구조의 중국 배임을 밝힐 수 있었다.

가치가 뛰어난 명품들

인양 발굴 뒤의 집중적인 연구 결과 이 배는 고려 말에 해당되는 14세기 초엽에 중국을 떠나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임이 밝혀졌다. 붓글씨로 쓴 나무 '꼬리표'에는 수취인의 이름, 물품명, 수량, 날짜 등이 낱낱이 적혀 있었는데 수취인은 일본사람이나 승려, 또는 사찰이나 신사(神社)로 되어 있었다.

지난해 산동반도의 해안에서 발굴 인양되었던 고려 배 두 척이 중국의 문화재 당국에 의해 최근 공개됐다. 신안 '보물선'과 비슷한 시기에 해당되는 이들 무역선을 통해 당시에 활발히 이루어진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바닷길 '실크로드'의 실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 재 곤

모든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해야

요즘 치과계에서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을 전면적인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스케일링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의료보험 급여항목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잇몸수술을 할 정도로 잇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이면서 잇몸수술을 한 경우만을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즉 환자의 사정에 의하여 스케일링을 하고 난 후에 잇몸수술을 하지 않으면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 때문에 치과에서도 단층촬영의 경우처럼 스케일링 치료비의 전액을 일반으로 처리하고 보험 청구후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잇몸수술비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의약분업 시행 직전에는 스케일링에 대해 전면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대다수 성인들이 가지고 있으며 중년 이후에 치아를 상실하는 주원인인 치주질환(잇몸병)을 스케일링으로써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할 수 있어 치과계에서는 크게 반겼다.

그런데 스케일링이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주범인 양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수준으로 환원시켜 버렸다. 특히 스케일링은 의료보험 급여가 되던 것이 되지 않음으로써 일선 치과에서는 지금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돈만 생각하는 집단이라거나, 또는 다른 치과에서는 의료보험을적용해 주는데 왜 이 치과에서는 해 주지 않느냐 등 정부의 정책 오류로 야기된 불만을 치과에서 감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치석과 플라그가 잇몸병의 주원인이라는 것은 잇몸약이나 치약광고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작년말 의료보험 재정의 흑자가 논의될 때부터 치과계에서는 스케일링의 전면적인 의료보험 적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으나 그 시행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잇몸질환을 조기에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치료인 스케일링을 의료보험급여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행위에 가깝다.

또 스케일링은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노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양보충이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소화기 기능일 것이다. 소화기 기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 치아와 치아를 보호하는 잇몸이기 때문이다. 잇몸의 건강이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첨병이라는 이야기다. 때문에 최근 치과계에서 스케일링의 의료보험 전면적 적용을 위하여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수시대에 필요한 영양공급의 첨병인 치아를 살리자는 운동에 치과의사들이 나선 것이다.

최근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 가능성을 예고하는 소리가 자주 불거져 나오고 있다. 치과계의 스케일링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보험 적용 운동이 퇴색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서정치과 대표원장 김재곤〉

기 고

김 덕 중

청년실업 심각…피크임금·파트타임제 도입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6년 2/4분기 전체 실업률은 3.4%로, 청년(15-29세)실업률은 7.7%(서울 8.0%·광주11.4%)로 지방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청년이 취업할때까지 계속적으로 사교육비의 부담이 늘어나게만 하는 심각한 현실이 될 것이다.

또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주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나홀로가구 연령별 분포는 60세이상 97만8천명, 20대 72만3천명, 30대 62만9천명, 40대 47만4천명, 50대 36만6천명순이며, 조손가정은 5만8천가구, 편부모 자녀가정은 137만가구로 각각 0.3%에서 0.4%, 7.9%에서 8.6%로 확대되는 추세로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복지수혜를 받아야할 국민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현대판 노예생활을 당하는 노숙자들, 정신지체장애인 부부의 기초생활수급 정부보조금의 착취를 보면 필연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복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공무원수는 천명당 0.22명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해소의 관점에서 공직자, 공·사기업, 교직원 등을 망라한 모든 봉급생활자에게 현재의 장기근속자 연봉상승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지출이 많은 연령층(40대후반 50대초반)에 급여를 높게 책정하고 그 뒤에는 점차 줄이는 피크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노령인구증가에 따라 피크임금 적용 이후에는 정규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한정해서 일할 기회를 주는 파트타임제를 활용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도입으로 인건비절감으로 신규고용이 창출되어 청년실업을 해소할수있고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면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고객서비스는 최상이 될것이며, 소외되기 쉬운 고령의 나홀로가구, 조손가정, 노숙자의 자립생활, 국민기초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시 남구청 기획감사실〉

말만 경품이벤트… 소비자 우롱 말아야

얼마전 컴퓨터를 하다가 한 인터넷 업체가 실시한 100% 당첨 경품 이벤트 행사에 참여했더니 1주일만에 당첨됐다며 집으로 스크래치 복권이 배달됐다.

'설마' 하며 믿지 않았다가 막상 상품권을 받으니 반가운 마음이 들어 얼른 긁어 봤더니 '비데 무료증정권'이 나왔다.

너무나 기뻐 다음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배송료 5만원을 내야 배달을 해주고, 설치를 원하면 설치료와 출장비를 포함해 4만5천원을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리 인터넷 업체측과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면서 상품만 지급할 수는 없다고 했다.

스크래치 상품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글씨로 '제품 교환용만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경품에 당첨됐다는 기쁨은 잠시, 오히려 기분만 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품을 받으려고 액수에 맞춰서 물건을 더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품행사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금동

대학 교육과정 현실에 맞게 바꿔야

광주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의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동생에게 대학 수학 교육의 문제점을 들었다.

인문계 고교에서 문과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면 수학을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수학을 반드시 배우는 이유는 사고 발달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인문계 고교 문과 학생은 공간좌표·벡터 등을 전혀 배우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데, 대학 교과 과정은 이것을 배웠다는 전제 하에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이공계 학생을 위한 수학 교과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공계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수강생 대부분이 이공계 학생들이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즘 누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업을 포기하고 싶겠는가? 대학 교육과정도 현실에 맞게 바꿔줬으면 한다. ▲유일숙·광주시 동구 수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정부 '8·31 부동산대책' 보완 서둘러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8·31 부동산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아 국지적 시장 불안속에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8·31대책이 변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31 대책'이 과연 노 대통령의 평가처럼 성공한 것일까. 시장의 평가는 별로 후하지 않다. 온갖 규제와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불패신화를 깨겠다'던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투기 광풍'은 잡았을지 몰라도 '3·30대책' 등을 보면 최소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는 '8·31대책'이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10~20%에 그치고 공급 과잉현상이 발생하는 등 빈사상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인식은 현실과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노 대통령은 "8·31 정책으로 거래가 실종되고 지방 건설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도 경기가 고점일 때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정상적 수요·공급 추세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자화자찬에 빠져 국민들에게 '8·31대책'이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은 올바를 자세가 아니다. 부작용이 커지면 전체 경제 운용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각종 규제와 제도를 일률 적용하는 정책은 지방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교조, 정치·이념투쟁 고집할 것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엊그제 전국대의원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통해 대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의 차등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을 위해 10월중 연가 투쟁 등을 강력히 벌이기로 한 것이다.

전교조의 결의대로 10월 연가투쟁이 현실화되면 교육현장은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교사들이 집단 휴가를 떠나서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전교조의 행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각종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반미·친북성향의 정치·이념투쟁에 몰두해왔다. 그 결과 일부 국민들은 '전교조가 교육발전의 걸림돌'이란 인식까지 갖게 됐다. 오죽했으면 전교조 산파역을 했던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과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김귀식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등이 전교조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을까.

하지만 일부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전교조는 강경투쟁과 함께 학생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법제화,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이용, 공교육 정상화, 촌지·불법찬조금·불법리베이트 척결 등 생활중심의 교육운동을 펴기로 했다. 전교조의 설명처럼 이와같은 순수 교육운동에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다.

전교조의 출범 취지는 '참교육'이었다. 교사들이 숱한 역경속에서도 참교육운동에 매진할 때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집단이기주의와 정치·이념투쟁을 고집해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위기의 교육을 살리고 전교조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완도 '괴물'

완도 생일도가 '괴물'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다. 해발 482m 백운산에 살고 있다는 이 괴물은 지난 1년 동안 흑염소 20여 마리를 먹어 치웠다. 죽은 흑염소는 머리나 발목뼈만 앙상하게 발견됐다고 한다. 발자국 등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그 정체를 목격한 주민도 없다.

이런 소식이 광주일보에 첫 특종보도되자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다. 네이버(www.naver.com) 등 포털사이트엔 '완도 괴물'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완도군은 파문이 확산되자 엽사(獵師)들을 동원, 현장을 둘러본 후 멧돼지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섬 주민들이 다시마 양식에 눈을 돌리면서 야산에 고구마 등이 없어지자, 흑염소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결론이다.

초식동물인 멧돼지는 먹을 게 없으면 토끼·들쥐·어류 등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는 잡식성으로 변한다. 주둥이 밖 12㎝가량 나온 송곳니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몸길이 1.8m, 어깨높이 110㎝, 몸무게 280㎏까지 큰 산저(山猪)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초여름에 7~13마리의 새끼를 낳는 어미가 흑염소를 잡아먹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그럴 듯하게 들린다.

몇몇 방송사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백운산 주변에 야간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습격 현장을 촬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 와중, 생일도에선 요즘도 밤마다 흑염소가 사라지고 있다. 주민들은 밤에 '모실'(마실)가는 것도 꺼린다는 소식이다.

성급한 네티즌들은 '츄파카브라'(chupacabra)에 주목하고 있다. '츄파카브라'는 1980년대 미국·멕시코·푸에르토리코 가축들의 목에 구멍을 내고 피를 빨아먹었던 미확인 생명체. UFO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흡혈 외계인'의 소행이라 확신했다. TV는 당시 목장주들의 진술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다퉈 특집물을 내보냈었다.

'완도 괴물'의 정체가 속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